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제주어 자료>

개염지영 벅말축

20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제주어는 제주인의 삶과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제주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문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그림책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어와 제주어를 혼용하여 사용했으며 대화 부분은 제주어로 썼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주어를 좀 더 알고 나아가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개염지영 벳말축

벳이 과랑과랑 입이 파삭파삭 몰르던 여름날, 개염지덜이 땀을 뻘뻘 흘리멍 일을 하고 잇섯습니다. 개염지덜은 흐건 먹을 것 물영 날르젠 흐난 질게 줄을 산 난리도 아니라. 경흐디 개염지덜이 일흐는 바로 옆 풀밭테서는 벳말축이 한글하게 놀래를 불르는 거 아니? 벳말축이 매날 흐는 일이엔 흐민 영 시원흐디서 놀래를 불르는 것 베끼 엇어.

“이 몰명흔 개염지야, 이추룩 더운 날에도 일 험시냐? 이 풀 소곱더레 와보라. 잘도 건드렁흐곡 좋다.”

지 덩치보단 더 큰 먹이를 꼬성 가젠흐난 헉헉대는 개염지를 보멍 벳말축이 우섯습니다. 개염지는 땀을 다끄멍 대답흐엿습니다.

“벳말축아, 이 여름이 지나민 곧 저슬이 닥칠 거여. 경흐난 지금 부지런히 일 헤사한다.”

“하하하, 저슬? 그건 아직 멀었저. 저영 벳이 과랑과랑 흐는디 벌써 저슬을 생 각흐염시난, 바보 아니냐?”

벳말축은 개염지덜을 내무렸습니다. 개염지덜은 비가 오나 ㅼ름이 부나 흐루도 쉬지 아니흐멍 먹을 것을 날랐습니다. 벳말축은 비가 오민 풀 앞 뒤에 곱앙 놀래 를 불르곶 ㅼ름이 불민 낭 곶망 소곶의 들어강 놀래를 불렀습니다.

“벳말축아, 느도 저슬 양식을 모두아사주 경 놀래만 불르당 어떻홀거니?”

개염지덜은 벳말축이 걱정뉼영 ㄹ랐습니다.

“흥, 날랑 걱정 말라. 난 놀래 불르멍 노는 일이 제일 좋다.”

벳말축은 바락 용심 내멍 개염지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았앗습니다.

시간이 흘렁 눈이 팡팡 오는 저슬이 뉼엇습니다. 벳말축은 추윅 온몸을 달달 털 멍 먹을 것을 좇앙 다녘습니다. 경해도 온 산천이 눈으로 더꺼정 이서부난 아무 것도 좇을 수 엇엇습니다. 벳말축은 그제사 여름 내내 놀래만 불른 자신이 두렸 다는 걸 깨달앗습니다.

“아, 좃곡 배고팡 못 살키여. 개염지들이 곶을 때 모두앙 놔둘걸. 아멩헤도 개염 지안티 먹을 쉼 얻어 먹어사 흙직하다.”

벳말축은 개염지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게우짜?”

“개염지덜아, 배 고폡 죽어지키어. 먹을 것 흐끔만이라도 주라.”

벳말축은 움직 움직 흐멍 부탁했습니다.

개염지는 문을 열단 추물락 놀래멍도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신 일이고! 흐저 들어오라.”

개염지는 벳말축 손을 심엉 집 안터레 들어갓습니다. 경흐고는 몸을 딱땃시 녹여주멍 먹을 것도 주엇습니다.

“벳말축아, 우리가 더운 여름에도 간새흐지 아니흐영 열심히 일흔 이유를 알아 지크냐?”

벳말축은 비치로왕 고개를 터러치우멍 말했습니다.

“느네덜을 비웃은 건 정말 미안하다. 아프로는 나도 열심히 놀지말앙 일흐마.”

꿇것 달븐 당나귀

매날 이 므슬 저 므슬로 잘도 버친 짐을 잔뜩 지영 땡기는 당나귀가 잇었습니
다. 흐루긴 당나귀 주인이 소금을 하영 상, 당나귀 등에 시껍 도시로 플레 가게
뒤었습니다.

당나귀는 딱 지치곡 짐이 하도 버쳐부난 제우제우 걷고 잇었습니다. 산을 넘곡
들판을 지낭 시넛물이 흘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당나귀는 시원흔 물을 보난 흐
끔 쉬고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날이 왁왁해지기 저니 혼저 가사 흐는디 무사 영 뭉켄시냐?”

주인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흐는 수 엇이 당나귀는 다리를 휘청거리멍도 물
소금더레 걸영 들어갓습니다. 그 때 당나귀는 민칠락 흐영 풍덩 넷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살려줍서, 히힝!”

물에 빠진 당나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참을 바둥거리단 제우 일어산 당나귀는 추물락 놀랫습니다. 아까 꺾지 경 버치던 짐이 흐썰 개벼워진 것입니다. 당나귀가 물에 빠전 허우적대는 사이에 소금이 녹았기 따문입니다.

‘물에 빠젓당 나오민 짐이 개벼워점구나!’

당나귀는 조아서 코를 벌름거렸습다. 그 다음부터 당나귀는 시넷물만 보민 역불로 휘청거리멍 빠지곤 헛습다.

‘아니! 이눔의 당나귀가 피를 부렴구나.’

당나귀가 자꾸 물에 빠지는 걸 눈치챈 주인은 당나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엇습다. 메칠 후제 주인은 당나귀 등에 소개를 잔뜩 실엇습다. 경흐고 딱시 그 넷창을 건너게 되엇습다. 당나귀는 물을 보자마자 지난번 일을 튼내언 또시 풍덩 빠젓습다.

‘히히, 이젠 개벼워져실테주.’

당나귀는 물 소곱의서 혼동안 여유를 부린 뒤 일어나젠 흐엇습다. 경흐디 등

에 진 짐이 뗏 배로 무거워전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엇엇습니다.

‘어? 이거 무사 영 무거우니?’

소개는 물을 빨아들이민 훨씬 무거워진다는 스실을 몰른 당나귀는 계속호영 일어나젠 브둥거렸습시다.

“확 일어나지 못헤?”

피만 부리던 당나귀는 주인에게 스정엇이 채찍을 마자사 헛습시다.

놀개 돋은 얘기

너네 강정므슬 알지? 엔날부터 물 맑고 땅이 좋아서 농시가 잘웨는 동네여. 지금은 저 서귀포 스방에 잇저. 우리 조상덜은 무사 경 못살아신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사 제우 밥 먹영 살앗젠흔다. 그 동네에 부모도 엇곡 그냥저냥 놈의 일흐레 댕기단 처녀영 총각이 이서신티 므슬 사름들이 중신을 노양 시집장개를 갓주.

경훈디 결혼한 지 얼마 안이성 이 부부는 골루기를 낳게 웨엇어. 가난헌 살림이 엇주마는 두 아덜을 얻은 것이 여간 지쁘지 았앗어. 아이들이 튼튼하고 요망지난 부부는 어려워도 사는 맛이 낫주. 애기 어멍은 애기를 질루멍도 놈의 일을 헤사만 애기덜광 떡곡 살 수 이서신디, 그땐 애기구덕을 지영 밧디강 낭 아래 노아뵤 일을 흐엿주. 경해도 아이들은 잘 커서.

흐루긴 애기 어멍이 이상헌 일을 보앗어. 분명히 아척이 성을 노단착에 아시를 원착에 눅져신디 즈낙에 보난 거꾸로 뵤 거라. 이상헌다 생각흐멍 애기 적삼에 흰 실로 패적을 흐영 눅져도 또 애기덜이 바꾸어정 싯곡 것도 춤 이상헌 일 아 이냐? 애기어멍은 이상헌 일이엔 생각은 헛주마는 놈안티는 흠부로 곱을 수도 엇곡 머리만 복잡흐엿주.

다음날은 애기덜을 눅져동 일흐레 가는 척 흐멍 헛간에 곱앙 무신 일이 일어날 건고 흐멍 지달렸어. 혼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흐곡 아무도 온 사 름도 엇어. 참 이상헌다 허멍 어멍이 창 트멍으로 애기덜을 보단 그만 가심이 터

러전 그 자리에 주저안잖어. 혼참이 지나도록 어멍은 정신이 가마득흐멍 일어나지 못흐엿어.

얼마 후제 어멍은 정신을 출령 창문 트멍으로 베려보난 아까영은 틀리게 애기덜이 구덕소급의 서 썩썩 자는 거라. 아까는 분명히 애기덜이 젓쟁이에 큼직한 놀개를 들앙 방안을 휘젓어뎅기멍 놀아뎅겨신디. 어뎅된 일인고?

그때만 흐여도 놀개가 돋은 사름은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난 그런 애길 낳으민 부모덜이 애기를 죽이던가, 아니민 관가에 신고를 헤사 흘 때랏어. 놀개이신 애기는 무조건 역적이랏주.

그런 스실을 안 어멍은 정신이 가마득흐여도 메칠 동안을 보아도 어제영 똑 고틈 거라. 그날 즈녁이 즈들아진 애기어멍은 남펜안티 말을 흐엿주.

“쌍둥이 아방, 큰일 낫수다. 이 일을 어뎅흐민 조으쿠과?”

흐루 종일 밧디서 일흐당 제주 줌자젠 흐염신디 자꾸 곱으난 짜증이 낫주.

“무신 일이라, 우리 곱은 사름덜안티 큰일은 무신 큰일?”

헝명도 각시 말을 들어주었주. 애기어명이 엉엉 울명 그 사이에 본 일덜을 다
곶아주었어.

그리고는 아이덜의 장래를 생각헝영 아버지 산소를 이장헝겐 헝였어.

“어떻 나 손으로 우리 애기덜을 죽입니까? 전의 누계산디 아버지 산 터가 곶덴
헝연게마는 ……”

“경헝여도 어떻 아버지 산을 흙부로 움직여지나?”

“스님도 그 자리가 명당이엔 헝였주마는 역적이 뉘는 것보단 낫지 아니헝파?”

메칠 후제 지픈 밤중의 두 가시는 아무도 몰르게 철리를 헝레 아버지 산소엘
갔어. 조은 자리에 7만이 이신 묘를 옮기는 것은 불효이주 마는 두 아덜을 생각
헝민 이정도사 아무 것도 아니렌 생각헝어. 헝참을 파내단 보난 이상헝 소리가
들렸어. 그것은 물 움을소리라. 이상헝게 생각헝 부부는 와리명 무덤을 파 느려
갔어.

“아!”

부부는 추물락 놀래영 삼을 놔똥 뒤로 물러샀어. 그 구덩이에는 큰 백물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잇었어. 뒷발은 세우곡 앞발은 아직 꿇어안жат어. 흰 물은 두 부부를 보난 눈물을 똑똑 흘리멍 이상헌 울음 소리를 내었어. 경흐고는 혼참을 울당 하늘로 내들앙 놀아가 버렸어. 부부가 아까 파던 구덩이 안을 보난 아버지 관이랑 말앙 아무 흔적도 엇이 빈 구덩이만 잇었어. 너무 놀랜 부부는 삼을 던져 놔똥 집으로 돌아왔어. 경흐디 집의도 큰일이 벌어졌어. 애기구덕에 누웠 잘 잠실 거엔 생각혼 애기 덜이 문딱 죽은 거라. 아주 조용하게 눈을 곱앙 즘자듯기 죽어부렀어.

“아이고 나 애기덜아. 이거 어평헌 일이고? 식사 잘못 만냥 죄엇인 느네가 죽엇구나.”

“불쌍헌 우리 애기덜…….”

부부는 가슴을 부여잡앙 한도 꾀도 엇이 울엇덴 혼다.

배 터진 꿀개비

“개굴개굴, 개굴개굴.”

조용하던 연못이 와글바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막 얼챙이 ㄱㄱ. ㄴㄹ을 댄 애기 꿀개비덜이 놀래를 배왕 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멍 꿀개비는 귀여운 애기 꿀개비덜안티 식상을 구경시켜주어서 흐겟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네덜아, 이 연못 안이 문딱인 줄 알았시냐? 하간 디가 다 볼 디여. 나강 보 카?”

애기 꿀개비덜은 어멍 꿀개비를 딱랑 물 배끗더레 나왔습니다. 경흐고는 퍼렁허 풀밭 위를 폴짝폴짝 튀어댕기멍 신기해 했습니다.

“야호!”

“어머니, 이건 무신거우파?”

“그건 폭리어. 영 심엉 먹는 거여.”

어멍 골개비는 세를 쪽 내밀엉 모기 심는 법을 ㄱ르쳐 주엇습니다.

“저건 또 뭐우파?”

흐끔 멀리 간 애기 골개비가 발견헌 것은 풀밭 우티서 한글하게 풀을 툫고 이
신 부렁이엇습니다.

“그건 부렁이엔 흐는 거여. 우릴 잡아먹진 아니흐주마는 어땡흐당 밭에 뽕히민
위험흐난 돌양 가게.”

어멍 골객비는 애기 골개비덜을 돌양 연못더레 돌아가젠 헛습니다.

“우와, 부렁인 진짜 크다.”

“눈도 크곡 배도 크곡 발도 커!”

애기 골개비덜은 난생 처음 보는 부렁이 이야기를 잘도 늘어놓앗습니다. 어멍
개구리는 애기 개구리덜이 부렁이 말만 흐난 보골이 낫습니다.

“야네덜아, 이레 바리라. 느네 어멍 배도 크다.”

“에이, 어머니는 부랭이보단 하영 즉수다.”

그 말에 보골이 난 엄마 골개비는 양지에 팽팽하게 뱃름을 담으멍 말했습니다.

“어떻 하니? 영 흐난 어멍도 부랭이만큼 크지?”

“아니우다!”

애기 골개비덜은 문딱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이번엔 뱃소곱까지 잔뜩 뱃름을 담양 주름을 짝 펴멍 들었습니다.

“자, 이번인 정말 부랭이만 흐지?”

“당추 아니우다.”

아기 골개비덜은 고개를 더 식게 흔들었습니다.

그 말에 보골이 난 엄마 골개비는 몸이 늘어날 수 이신디 까지 한껏 몸을 부풀었습니다. 부풀리곡 또 부풀리곡, 경흐단 엄마 골개비는 그만 ‘퐁’하고 배가 터정

죽고 말았습니다.

뽕쟁이 가마귀

“생이 우는 소린 아무 때 들어도 조아.”

숲 소꿉의서 걷던 임금님은 생이덜의 노랫소리에 기분이 좋양 중얼거렸습니다.

“경헌디 저 생이덜안틴 왕이 어신게. 나가 생이덜 왕을 정해취사 뽕직헌다.”

숲의 임금님은 곧 생이덜을 불러들였습니다.

“느네덜 가운데 제일 곱닥헌 생이를 뽕양 왕으로 정헝키여. 메칠 후제랑 다시 모이라.”

그날부터 생이덜은 깃털을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경헝고 만나기만 헝민 앞 드투멍 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울긋불긋헌 털을 가진 원앙새가 뽕냈습니다.

“보나마나 왕은 나 츠지라. 영 곱닥헌 깃털을 가진 생이 이시믄 나와 보렌 헝여.”

경흐난 조꼳디 싯던 백조가 나섯습니다.

“무신 소리! 깃털은 나추룩 우아헤사 곱주.”

백조는 하얀 깃털을 활딱 펼치곡 생이덜 앞을 사뿐사뿐 걸어댕겿습니다.

그때 흔착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까마귀가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어요.

“식상에 이추룩 곱닥흔 생인 처음 뵈져. 널 왕으로 삼으켜.”

까마귀는 보란 듯이 화려흔 꼴랭이를 쪽 펼치곡 생이덜 앞더레 나왔습니다.

“저거 나 깃털이여”

“맞다. 요건 나 깃털인다…….”

생이덜은 놈의 생이 깃털로 곱닥허게 허영은 가마귀 헌티 돌려들엉 몬딱 뵈아가버리난 가마귀 맨몸뚱이만 남안 울엇댄 마썸.

아버지영 아덜

아버지영 아들이 나귀를 풀레 시장더레 가는 질이우다. 나귀의 고삐를 심엉 걸어가는 아버지와 그 뒤를 터벅터벅 따라 가는 아덜을 본 사름덜이 수군거렸수다.

“저런 모지렌 사름덜, 나귀를 탕 가주 무사 고생헿멍 걸어감신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사람들 말이 맞덴 생각했수다.

“맞다. 무사 그 생각을 못헿여신고? 야야, 헿저 이 나귀 등에 타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뒤 따라오던 아들은 번쩍 안양 나귀 등에 태웠수다.

헿참 이시난 아버지와 아덜은 노인덜을 만났습시다.

“아멩 세상이 변헿주마는 저런 못된 아덜을 봤나. 늙은 아방은 걸어가곡 새파랑 헿게 절픈 아덜이 나귀를 탕 가다니, 쫓쫓쫓”

노인덜은 혀를 끌끌 차멍 아들을 야단쳤습시다.

“안뉘키여. 내려오라. 나가 탕 가사 늙들안티 옥을 안먹을 것 뉘다.”

아버지는 아덜을 내리게 흐곡 이녁이 나귀 등에 올라타습니다.

경혀영 얼마쯤 가신디 이번에는 우물가에서 서답을 흐던 아지망덜을 만났습니
다.

“저 아방은 춤 인정도 엇다. 두린 아덜은 애쓰게 걸어가라 흐곡…….”

“둘이 곶이 탕 가민 뉘 건디.”

그 말도 들언보난 맞인 말이랏수다.

“아덜아, 느도 이레 올라타라 둘이 곶이 탕 가게.”

두 사름이나 태운 나귀는 탁 지청 비틀거렸습시다.

“정말 몹쓸 사름덜이라. 저 비틀거리는 나귀 보라. 불쌍흐다이”

지나가던 사람덜이 그 모양을 보명 막 흥을 보앗습시다.

“야야, 저 사름덜 말이 맞다. 우릴랑 느리곡 나귀를 메영 가게.”

둘은 장대에 나귀의 네 다리를 묶은 후, 아버지는 앞의서 아덜은 뒤에서 장대를
메영 갓습시다.

거꾸로 매달린 나귀는 킁킁거리며 발버둥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비틀거리며 냇창을 건너게 됩니다. 그 때, 건너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손가락질 하며 웃습니다.

“하하하, 저기 좀 봅서. 글썄 사름이 나귀를 메영 감수계.”

웃음소리에 추물락하게 놀랜 나귀는 더욱 바둥거립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와 아들은 비틀거리당 나귀영 혼디 냇창 속으로 풍덩 빠졌덴 합니다.

양테우리 소년

어느 므슬에 양테우리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어시 혼자만 므슬 뒷산의서 양 떼를 질루던 소년은 너무 심심했습니다.

‘어디 즈미진 일 어신가?’

“기여, 사름덜을 추물락 놀라게 흘 장난을 쳐사 흐키여.”

양테우리는 발딱 일어남 므슬더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우다! 늑대가 나타났수다!”

그 소리에 놀랜 므슬 사름덜은 헐레벌떡 산더레 돌아왔습니다.

“늑대는 어디 이시니?”

“하하, 스실은 너미 심심흐영 장난친 거 마썸.”

양테우리는 놀래영 둘러온 므슬 사름덜을 보멍 낄낄대멍 웃었습니다.

다음 날 양치기 소년은 또 장난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일났수다! 늑대가 나타났수다!”

므슬 사름덜은 딱시 일흐단 놔된 헐레벌떡 산더레 허겁지겁 돌아갓습니다. 양치기는 그모냥이 어떻사 우스운지 배를 심영 등글멍 웃엇습니다.

“이 녀석, 또 이런 장난을 헛당은 혼날 줄 알라!”

메칠 후제 이번에는 정말로 므수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름덜, 진짜 늑대가 나타났수다. 도와줍서!”

“저 녀석이 또 심심헌 모냥이여.”

“말 말라. 우리도 이젠 안 속은다.”

두 번이나 속은 므슬 사름덜은 코웃음을 쳷습니다.

얼마 아니이선 양덜은 늑대안티 다 잡아멕히고 말앗습니다.

으 망진 가마귀

하도 더운 날이 계속 뒤난

가마귀 혼 머리가 물을 좇앙 이디저디 돌아댕겨십주.

경흔디 넷창이 몬딱 붓다부난 물을 구흐 수가 어신 거라.

“어유, 애 물랑 죽어지키여. 어디 강 물을 구흐코?”

가마귀 지청 늘지도 못흐곡 종종종 걸어댕겨주게.

“어? 저건 무신 거라?”

가마귀 혼참 걷당 밧디서 펡을 보고는 포르르 놀아갓주.

“야, 물펠이여. 이제 살았저.”

가마귀가 좇인 건 누겐가 먹당 텍긴 물펠이라.

가마귀 소뭇 지꺼정얼른 물펠 소급에 부리를 듬갓주. 경해도 물이 펡 창에 흐끔

이시난 어떻 흐 수가 어서.

“어떻흐코? 제우 좃은 물인디 먹질 못흐키어.”

가마권 조은 방법이 어신희명 고개를 재우렸주.

“이 물을 꼭 먹어사 흘건디…….”

“경흐민 델로구나.”

가마권 무신 생각을 헤신지 스방을 돌아댕기기 시작했수다. 흐끔 잇이난 가마권 입에 즉은 돌덜을 물어당 물팽 속더레 담곡 또 강 담곡.... 경흐난 팽 속 물이 점점 위로 올라왔수게.

물은 가마귀 부리가 미치는디 깥장 올라왔고 가마권 시원하게 물을 먹엇젠 홉니다.

“아이고, 산도록흐다. 살아지키어.”

태양광 벼름의 내기

흐루긴 심술다리 벼름이 태양을 츠자왓습니다.

“이봐,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누젠지 알아? 바로 나 벼름이주.”

“무신 소리? 나 힘이 세주.”

태양도 지지 아니흐영 말했습니다.

“사름덜은 나가 흐끔만 가참게 가도 땀을 뻘뻘 흘리멍 어뎡 흘 줄 몰르주. 당나 귀도 지청 힘을 못 내곡 사자도 사냥을 못흐영 늘어진다고. 경흐난 나가 질 센 거여.”

경흐난 벼름이 잔뜩 으스대멍 말했습니다.

“나 입짐 흐 번이민 지붕은 획 놀아가곡 낭들도 부들부들 턴단 말이여. 이만흐 민 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겠지?”

“아니라. 나가 더 세.”

“아니, 나엔 흐난!”

태양광 브름은 서로 지neck이 더 세덴 심백흐멍 드투기 시작했습니다.

“경흐민 누게가 더 센지 내기를 흐여보게.”

그 때 태양광 브름은 혼 나그네가 걸어가고 잇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디 걸어가는 사름 외투를 벳기는 쪽이 이기는 거라. 어떻흐여?”

태양의 말에 브름도 선뜻 좋덴 흐였습니다.

“조아! 나가 문처 실력을 보여 주주.”

브름은 말을 므치자마자 나그네를 향흐영 드려들었습니다.

“벳겨지라, 외투야! 휘이익~”

브름이 어떻사 기세등등하게 몰아치는지 주벤의 풀광 낭덜이 혼착으로 지우똥
흐였습니다.

“어이구, 무신 브름이 영 불엄시니? 춥다, 추워.”

나그네는 얼른 외투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걸 본 브름은 약이 올란 더 세계 입짐을 붙어 댕습니다.

“이런, 잘못하당 외투가 날아가 불키여.”

나그네는 잔뜩 몸을 움츠리며 양착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는 아
멩 브름이 세계 몰아쳐도 뱃겨지지 아니하엿습니다.

“아, 심들다. 난 이제 그만 헤사 하키여. 정 불끈 심엉 이시난 뱃길 수가 엇다.”

심이 다 바져 버린 브름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번인 나 차례여. 잘 보라이.”

태양은 빙세기 웃으멍 딱뜻흔 뱃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사 하꿈 딱뜻하다.”

나그네는 꼭 잡아 잇던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멍 말했습니다.

태양은 점점 더 강하게 열을 내뿜었습니다.

“휴후— 날씨가 무사 영 벤닥이니? 더웁 춤을 수가 엇다.”

나그네는 마침내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 모양을 본 브름은 비치로왕 어디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황금 독새기 낳는 둥

어느 므슬에 아무 것도 엇이 못사는 두 부체 안티 둥 혼 므리가 생겼습니다.

경혼디 이 둥은 매날매날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었습니다.

부인은 하도 조아그네 입이 함박만하게 벌어졌습니다.

“하영 먹영 독새기 쑥쑥 나라.”

가난했던 부부는 이제 황금 독새기를 내다풀양 부자가 되었습니다.

경혼디 부체가 뤄난 이 부인은 욕심이 생겨그네 더 큰 부체가 뤄고 싶어졌습니다.

“저 놈의 둥, 황금독새기를 무사 하루에 하나씩만 낳아신고?”

“흔꺼번에 하영 나오민 잘도 조을 걸.”

이제 부인은 둥을 답달하곡 구박깅장 했습니다.

“여보, 무신 좋은 수가 어실 꺼가 마쑈? 영 하나씩 풀당 어느 제민 큰 부체가

돼쿠과?”

“이만흐민 지금도 우린 부제우다. 여보, 욕심내지 말앙 기냥 삼주.”

남펜은 부인을 달랠습니다. 경해도 부인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갑습니다.

“이 뚝 뺏소급의 황금 알이 ㄱ득 들어 이신 게 분명흐우다. 흐루흐루 지달리느
니 뚝을 잡앙 혼저 더 큰 부제가 돼는게 좋쿠다.”

남펜이 말려도 부인은 욕심에 어두웁 끝내 늘슨 칼로 뚝의 배를 갈랏습니다.

경흔디 뚝 뺏 소급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들어잇지 았앗습니다.

“아이고, 어떻흐코. 황금 독새기를 혼꺼번에 봉그젠 흐당 이젠 하나도 못 얻게
돼엇저.”

부인은 그제사 땅을 치곡 울명 후회했지만 벌써 뚝은 죽어분 후제엿습니다.

일러두기

1. 여기 실린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 골랐다.
2. 초등학생들의 제주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화부분만을 제주어로 바꾸었다.
3. 여기 실린 제주어 표기는 제주어 사전(제주도청, 1995)에 근거했다.
4. 지역에 따라 발음과 표기가 틀린 제주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5. 전문을 제주어로 바꾼 이야기는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실었다.

개발위원 북촌초등학교 교사 변순자

신광초등학교 교사 고진숙

대흥초등학교 교사 김정연

대흥초등학교 교사 이윤정

김녕초등학교 교사 이영림

삽화위원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교사 박재희